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신임 장관 취임



정운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식이 지난 2월 29일 오후 늦게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은 농업·수산업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식품산업까지 아우르게 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새롭게 탄생한 농수산식품부의 초대 장관에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정 장관의 취임식은 취임사만 하던 과거와는 달리 정 장관의 특별 강연과 중창단 공연 등 특색 있는 행사로 꾸며졌다.

정 장관은 취임사와 ‘농·어촌에 밀물의 시대를 열자’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오랜 농업 현장경험에서 나온 평소 지론을 전달했다.

개방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간의 수동적·방어적 농·어업에서 벗어나 능동적·공세적 농·어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농·어촌에 만연한 불신과 비판, 절망,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활력과 희망이 충만한 ‘밀물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농·어업의 밀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품목별 국가대표조직 육성’,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 ‘1시군 1농업 뉴타운 건설’, ‘농식품 유통고속도로 구축’ 등을 제시해 앞으로 농수산식품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또한, 농정의 기본원칙으로 “희망·긍정·창조·신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정운천 장관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이리 남성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원광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0년 전남 해남에 국내 1호 농업인 주식회사인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2006년 한국농업CEO연합회를 창립해 회장으로 일해 오면서 우리 농업의 차별화·전문화·브랜드 등 독창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 왔다.

조직개편, 2실 1본부 10국(단) 44과(팀) 구성

국회가 지난 2월 22일 본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키는 ‘15부 2처’의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농업과 어업 및 수산정책, 식품산업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탄생했다.

새로 개편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2개의 실(본부)과 10개의 국(단), 44개의 과(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장관 아래 제1차관과 제2차관을 두고 제1차관 소관에는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을, 제2차관 소관에는 식품산업본부와 수산정책실을 두고 있다.

식품산업본부에는 식량정책단과 유통정책단, 그리고 현재 축산정책국과 같은 축산정책단이 있으며, 축산정책단에는 축산정책팀, 축산경영팀, 자원순환팀, 축산물위생팀, 동물방역팀 등 5개팀을 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기존 농림부 홈페이지 주소 그대로 사용

농림부 홈페이지가 정부조직법 정식 공포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로 바뀌었다. 개편 이후에도 기존 농림부 홈페이지 주소 그대로 치면 이용할 수 있다.

농림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로 약자인 'MAF'를 영문도메인 'www.maf.go.kr'로 사용해 왔다.

이번에 바뀐 농림수산식품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 Food'로 약자로는 'MAFFF'가 되어야 하나, 농림부를 이용하던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위해 기존 농림부의 주소 'www.maf.go.kr'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민원 접수 및 참여 등은 조직개편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월 지원기준소득금액을 작년 52만원에서 올해 6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예산도 작년 761억원에서 88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농·어업인 27만3천명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보험가입자의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월 최대 지원한도인 27,9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올해 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

준소득금액 이하 대상자가 작년(2만9천명)보다 144% 증가한 7만1천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자의 24%에 이른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지역)에 가입하고 농·어업인이어야 한다.

■ 문의 :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선진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기법 강좌 참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2주간) 미국 콜로라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조류인플루엔자 역학 강좌'에 역학 조사과의 박지용 박사를 참석시켜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적 분석 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본 강좌는 미국 농무성(USDA)과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과학적인 예찰(surveillance)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위험평가의 실시를 위한 핵심기술을 참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강좌는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적 분석 기법에 대해 국제적인 역학전문가의 강의와 참석자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또한 ▲과학적인 예찰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선진기술과 실제 적용 사례 ▲가축질병 방역 전략의 기본 원리, 국제기준과 외국의 사례 ▲가축질병 발생과 관계되는 위험요소의 확인과 이에 대한 위험평가 ▲시공간 분석, 질병전파 모델 등의

최신 역학 분석기법과 이에 사용되는 통계학적 원리 등의 주제에 대한 강좌가 이어졌다.

금번 강좌 참석을 통해 습득하는 역학적 분석 기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국내 역학 조사 방법을 진일보 시켜 국가 가축 방역 및 역학 조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적 분석 기법을 개선하여 정례화 시키고, 질병 발생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제를 개선하여 질병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며 가축질병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울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향후 지속적인 역학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 협력을 통해 최신 역학정보 수집 및 선진화된 국제 역학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해외 강좌 참석을 통해 선진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우리 가축방역의 국제화·선진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실험 윤리위원 대상자 교육, 성황리 종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월 19일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대상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동물보호복지정책방향, 동물실험 신규제도, 연구윤리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 운영사례, 실험동물 마취 및 사후처리, 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관리, 동물실험



계획서 심의평가 요령 등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이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연구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실험의 신뢰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적절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이뤄내는데 동참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및 업무설명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은 지난 2월 18일 한국주부교실, 농축협 조합장, 소비자·생산자단체, 수출입 업체와 유관기관 등 주요 고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러한 업무보고 방식은 지원장이 검역원장에게 보고해 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2008년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은 수입자유화 시대에서



국경의 파수군 역할을 하고 있는 검역원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 칭찬했으며, 중단된 돼지고기 및 닭고기 일본수출 재개지원과 축산식품의 안전대책 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건의했다.

이번 업무 설명회는 2008년 업무계획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고객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변화된 검역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식품 수출지원 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호남지원은 지난 2월 15일 금강철새조망대에서 농림부 수출관계관,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수출지원 간담회에는 호남지역 수출업체들의 신규시장 개척 및 획기적인 검역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개선된 서비스 내역으로는 우선 현장에서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제공함은 물론 분기별로 수출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찾아가는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까다로운 수출조건을 제시하여 시장 개척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협상단을 파견해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년 중 검역 단계별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수출국의 수입조건 등을 수집하여 새로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수출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년 업무성과 우수기관 시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지난 2월 14일 농관원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에 추진했던 업무추진실적, 혁신활동, 민원만족도, 청렴도, 홍보 등을 종합평가한 '업무혁신'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지원(5개)에 대해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경북지원' 이, 우수상은 '전남지원' 과 '경남지원' 이, 장려상은 '경기지원' 과 '충북지원' 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경북지원' 은

2005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한편, 전국 109개 출장소에 대해 각 지원(支院)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지원(支院)별 최우수출장소도 함께 발표했는데, 경기지원의 수원·오산출장소를 비롯해 원주(강원), 제천·단양(충북), 공주·연기(충남), 정읍(전북), 함평(전남), 부산(경남), 서귀포(제주) 등 9개 출장소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김재수 원장은 금번 평가 결과 우수지원 및 출장소에 대해서는 시상금 차원에서 예산의 차등 배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관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고객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일 잘하는 기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대대적인 내부 조직 혁신 이뤄낼 것



지난 2월 20일 여야가 극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폐지로 가닥이 잡혔던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일단 확대 개편되는 농수산 식품부의 외청으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은 '유보' 상태일 뿐 존치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안도하기보다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인식 청장은 지난 2월 21일 수원소재 본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인식 청장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농진청을 혁신해 나가겠다"며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적인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이는 FTA 등으로 겪고 있는 한국농업의 위기를 기술농업으로 극복해 달라는 격려와 기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진청을 중앙행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 출연·연구기관 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상시 기술수요조사 체계확립과 연구성과에 대한 심층평가제도 정착, 연구과제의 외부공모 확대, 일몰형 과제확대, 민간 R&D 활성화 지원, 농업의 2, 3차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강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술보급기능을 활성화하고 일선 지도사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찬을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확대하겠다"며 "농업인과 농민단체, 농협, 품목조직, 소비자 등 외부전문가의 평가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연 공동연구체제 구축

농촌진흥청이 올해부터 산·학·연 공동연구체제로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품목별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적극 나선다.

이 사업은 한·미 FTA가 발효된 뒤에도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품목별 현안 기

술과 핵심 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진청은 연구 과제를 공모 중이며 3월부터 10개 연구단에서 36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연구 대상은 콩, 인삼, 채소 종자, 사과, 배, 단감, 나리, 한우, 돼지, 닭이 선정됐다. 앞으로 고추, 토마토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축산과학원

재래닭 복원 100% 완료



재래적갈계 : 육질형

재래황갈계 : 육질형

재래흑계 : 육질형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멸종 위기에 처해있던 한국 고유의 품종 ‘재래닭’을 100% 복원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닭 종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멸실 위기를 맞았고, 그 동안 외국에서 매년 수십만 수의 종계를 수입해온 실정이다.

축산과학원은 닭 종자의 개발을 위해 1992년부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육되어져 오던 재래닭을 수집, 기초계를 조성하고 고유특성에 따른 순수계

통을 육성하는 한편, 한 마리씩 개체관리를 해 왔다. 그 중 15세대를 선발, 육성하여 계대를 이어오면서 주요형질에 대한 능력검정과 개량작업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복원 완료한 재래닭은 적갈색, 황갈색 및 흑색의 외모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콜라겐 성분이 많아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닭고기의 풍미를 결정하는 메치오닌과 시스틴 등 황아미노산이 풍부해 제대로 된 닭고기 맛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축산과학원은 재래닭 복원에 평생을 바친故 최철환 연구관 가족에게 송덕패를 전달기로 했다.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던 한국 고유의 품종인 재래닭을 복원하기까지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축산과학원의 연구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열정적으로 재래닭 복원에 앞장섰던故 최철환 연구관. 최철환 연구관은 지난 1월 2일 축산과학원 연구실에서 평소처럼 근무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고 3일 수술을 위해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이송한 직후 향년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 1979년 공직에 몸담은 이래 닭 관련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한국재래닭 복원에 일생을 바쳐왔다.

축산과학원 가금과 직원들은 “이제야 한국재래닭의 복원과 산업화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데, 이 기쁨을 함께 할 수가 없어 마음이 아플 따름”이라며 “최 연구관이 한국재래닭을 위해 흘렸던 땀과 열정에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송덕패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축산과학원은 이번에 개발 완료한 닭 종자는 FTA에 대응한 고품질 닭고기 생산을 위한 모본으로 활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전략상품의 지속적인 출시를 통해 농가 소득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재래계 주요계통의 외모 특징〉

부위별	외모특징	계통		
		적갈색	황갈색	흑색
체형	장방형이고 후구를 향해 낮아짐	적갈색	담황색	흑색
벚	홀벚, 관침 5개 내외로 직립, 두께는 얇음	선홍색	선홍색	암적색
머리	중간크기에 갸고 넓은	적갈색	황갈색	흑색
부리	단단하며 조금 굽어 있음	진한 황갈	황갈색	흑색
눈	중간크기에 맑고 투명	밤색	밤색	진한 밤색
얼굴	크며 깃털 없음	선홍색	홍색	암적색
깃털	중간크기에 타원형	선홍색, 백색	선홍색, 백색	적색, 백색
고기 수염	턱밑에 길게 매달려 있음	선홍색	선홍색	흑적색, 적색
목깃털	많고 길어서 등의 앞부분을 덮음	적갈색, 적녹색	황갈색	흑색
등	직선으로 중간넓이, 뒤쪽으로 경사	적갈색	황갈색	흑색
가슴	등골고 약간 돌출되어 있고 앞쪽으로 발달	적갈색, 흑색	황갈색	흑색
날개	조금 길며 나르는 힘이 강함	적갈색, 흑색	황갈색, 흑색	흑색
피리	깃의 발육이 좋아 길고 이음 다음	♂ : 녹흑색 ♀ : 적갈색, 흑색	♂ : 녹흑색 ♀ : 황갈색, 흑색	흑색
다리	길이는 중등정도, 깃털 밀생	황갈색	황갈색	흑색
정강이	적당한 길이에 가는 편이며 우모 없음	황갈색, 회흑색	황갈색, 회흑색	회흑색, 흑색
발가락	잘 발달하고 발가락 수는 4개, 우모 없음	황갈색, 회흑색	황갈색, 회흑색	흑색
머느리 발톱	수컷은 큰 편임	황갈색, 회흑색	황갈색, 회흑색	회흑색, 흑색

축산물HACCP기준원

경상대학교와 산학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2월 11일 경남 진주에 소재한 경상대학교(총장 하우송)와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발전과 축산물 위생 관련 정보의 상호이용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학술, 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및 교환 위생관리 및 위생검사의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위생관리기법 개발 등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축산물HACCP에 관한 교육 관련 업무 협조 ▲기타 생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업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축산물HACCP기준원은 상호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보완으로 축산물 위생업무 및 기술연구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상대학교의 도움(교육장 및 시설)으로 경상권에서의 '찾아가는 교육 및 이동기술상담'을 통

해 HACCP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HACCP기준원은 한경대학교,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이어 경상대학교와 3번째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HACCP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여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강대 경제학부와 연구협력협정 체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지난 2월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서강대학교 경제학부(학장 남성일)와 연구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MOU 협정을 통해 경제적 분석 방법론과 정책개발 및 자문과 관련된 공동연구, 연구과제의 공동수행, 소속 인력 및 연구정보의 공유,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우수 학생 인턴기회 제공과 위탁교육 등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원은 이번 서강대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연구 및 교육 부문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0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2월 22일 200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안)과 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상호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 악성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해 예찰 강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악성전염병 유입·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여 상황실 및 교통통제소 설치와 살처분을 지원할 초동방역팀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경영혁신사업은 경영로드맵을 수립하고 경영비전인 ‘가축방역 통합지원 기관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9개 혁신주제와 27개 혁신과제를 제정하고 79개 세부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06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 ‘우수기관’ 표창, 고객만족경영 비전 수립·선포, 고객감동결의·혁신BP경진대회 개최 등이다.

주요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검색실적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18만9천호를 실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축산물가방역정

보시스템(FAHMS)을 개발하고 개인무선컴퓨터(UMPC)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농가방역정보를 입력한 결과 177천호의 양축농가 DB, 243천호의 농장방역실태점검 DB 등 실효성 있는 방역정보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초동방역 지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사)대한양계협회

신임 회장에 이준동 충북도지회장 당선



(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186명의 대의원(위임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에서는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관련업체에 대한 포상으로 감사패, 감사장, 공로상에 대한 시상이었다.

2부에서는 김영근 감사의 2007년도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보고 및 부의안건 심의로 '2007년 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결산보고', '200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퇴임 및 보선추인(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제18대 회장선거에서는 총 210명의 대의원 중 175명이 선거에 참여해 총 102표를 얻은 이준동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준동 신임 회장은 양계산업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으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2008년도 제39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손숙미)는 지난 2월 23일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에서 전국 대의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제39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

18대 곽동경 회장 이임과 제19대 손숙미 회장 취임에 따른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 2, 3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제1부 개회식에서는 지난 한 해 협회를 지원한 외부 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협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우수 시도영양사회상과 분과상 수여,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에 대한 학술상을 수여했다.

제2부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전회장 공적 보고, 송별사, 퇴임사에 이어 신임회장 취임사가 있었으며, 제3부 대의원 총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 승인과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인사소식

•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2월 29일자

- 1차관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
- 2차관 박덕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